

북스

Books

‘디자인 사용자’로서의 주권을 찾아라

비밀 많은 디자인씨

김은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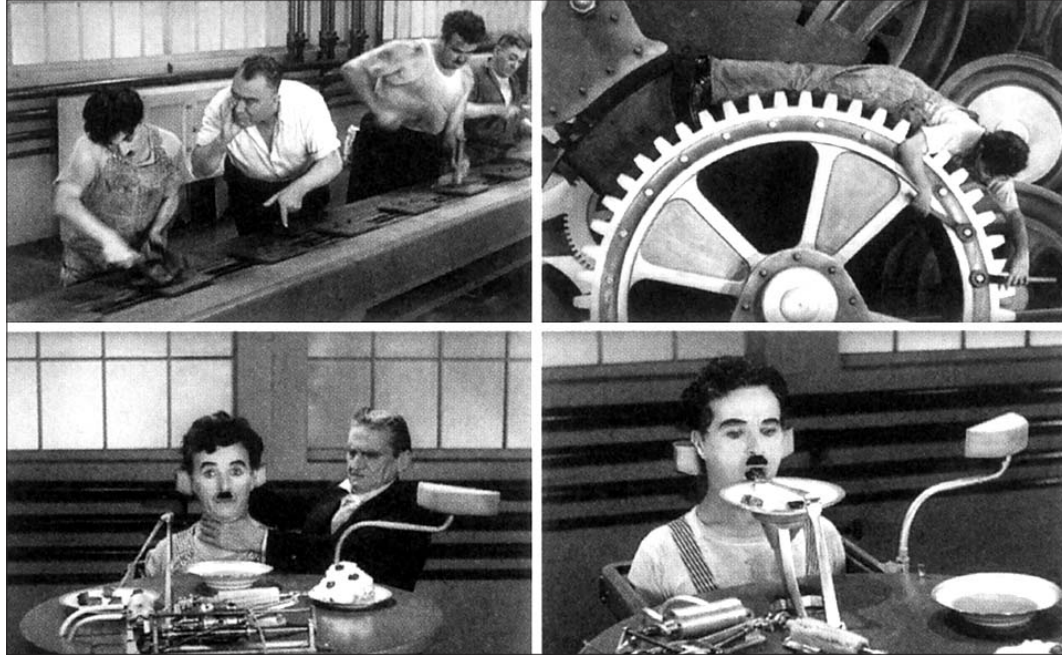
최근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2011년 9월2일~10월23일)의 전시주제가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로 정해졌다. 우리가 디자인이라 부르는 것이 모두 디자인이 아니냐는 뜻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디자인에 쌓여 살고 있다. 잘 디자인 된 의자 위에 앉아있고, 집 안에서 살며 웃을 입기도 한다. 디자인은 이미 현대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상 생활이 된 것이다.

이미지 비평과 문화 연구를 전공한 김은산씨의 ‘비밀 많은 디자인 씨’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의상, 공업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이다. 하지만 디자인은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을 비롯해 디자인과 경제학을 합친 ‘디자인노믹스’, 민주주의와 결합시킨 ‘디자인노크라시’ 등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용어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신상품을 내놓을 때 유명 디자인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 주변에 ‘생각하지 않은 디자인’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디자인에 대해 좀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정부에서 만든 공공시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로서만 역할을 다하고 있



디자인의 발달은 산업혁명이라는 대규모 생산방식과 기술의 변화 때문이다. 사진은 산업화 과정의 비극을 다룬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

다”면서 오스트리아 빈과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수용 태도를 비교한다. 책은 공공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동시에 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까지 반영해야 하는 오스트리아 빈과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 조형물을 만들는데 시민의 의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던 서울시의 사례를 비교한다.

저자는 “구경꾼에서 벗어나 사용자로서 주권을 찾아라”고 주장한다.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이 디자인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썼다는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디자인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어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 조건, 디자인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담았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의 컨베이어 벨트, 혁신적 디자인의 대명사가 된 스티브 잡스와 애플, 삼성갑식 아파트 문화, 현대미술 작가 톰 사스크가 만든 ‘프라다 변기’ 등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사례와 문화현상을 제시했다.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2006년 오스트리아 빈과 서울에서 각각 벌어졌던 공공디자인 관련 논란이 차례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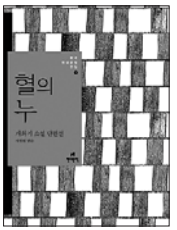
저자는 “디자인이란 자기 삶과 환경을 결정할 자유이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내린다. 또 “디자인의 ‘소비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철북·1만20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혈의 누·무녀도 등 10편

현대소설사 대표작 출간

현대문학이 한국 현대소설사의 대표작들을 모은 한국 현대문학전집을 출간했다.



주요 작가들의 대표작을 주제별, 시기별로 엄선하고 전문 연구자의 해설을 붙여 작가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2년여의 준비 끝에 선보인 1차분은 개화기 소설 단편집 ‘혈의 누’를 시작으로 연상섭 작품선 ‘두 파산’, 이태준 작품선 ‘해방 전후’, 김동리 단편집 ‘무녀도’ 등 총 10권이다.

이번 전집에는 문학평론가 김윤식, 정호웅 홍익대 교수, 서경석 한양대 교수, 김경수 서강대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현대문학·각권 1만2000원~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책과 독서의 문화사

육영수 지음

구텐베르크가 없었다면 종교 개혁, 과학 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까? 개인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 순간의 중심에는 대개 책이 있다. 또한 ‘내면적 목욕’이라는 근대의 독서법이 비판적 독서와 전복적 세상 읽기로 이어졌듯, 책을 둘러싼 행위와 문화도 사상과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가 쓴 ‘책과 독서의 문화사—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역사를 움직인 책의 저술-인쇄-출판-보급-수용에 관한 연구, 즉 ‘책과 독서의 사회문화사’라는 역사 연구의



책·독서·출판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였나

영역에 주목했다.

책은 이 새로운 역사 연구의 기원과 특징 및 주요 이슈를 사학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책과 독서, 출판이 근대 서양의 시대정신과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인쇄술의 확산이 서양 ‘근대성’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져보고 종교 개혁과 과학 혁명 같은 역사적 진보의 기폭제가 된 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한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책 역사의 진원지이자 중심지였던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책과 독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인쇄술에 도입된 각종 과학 기술적 향상이 18세기 프랑스 민중 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해 책·독서의 역사와 과학·기술사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한다.

5장은 출판인의 역할에 대해 다뤘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출판인들이 상업적 거간꾼에서 독자적인 전문 에이전트로 거듭나는 역사적 조건과 과정을 추적해 저자-독자의 틈바구니에 숨어 있던 출판인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미국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하버드대 도서관장으로 있는 로버트 단턴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과 독서의 역사, 그리고 내일을 전망한다.

저자는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전통적인 책-저자-독자의 개념이 폐기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미래에도 책과 독서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이라며 외국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에 대한 성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에서의 책과 독서의 역사 쓰기’를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책세상·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사진의 극과 극=생경한 소재와 그로테스크한 구도, 형용하기 어려운 형상, 낮은 색채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불편한 현대 사진을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사진에 답아야 할 주제와 메시지 즉, 사진의 내면적 요소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예쁘고 선명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국내외 유명작가 사진 60여 점을 ‘극과 극’이란 콘셉트에 맞추어 새롭게 설명했다. <학고재·1만8000원>



▲책을 읽고 양을 읽다=40여 년간 책을 만들어 온 일본의 배태량 편집자의 독서 에세이집. 저자는 일본 고전을 비롯해 ‘논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의 ‘쿠빌리언’ 등 동서양의 고전에서 옛 사람들의 숨결을 되살려낸다. 책 제목 ‘책을 읽고 양을 읽다’는 독서에 열중한 나머지 양을 읽어버렸다는 장자의 고사에서 따왔다. <이순·1만2800원>



▲성장은=언론인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플리처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러셀 베이커의 자서전. ‘20세기 후반 최고의 풍자가’로 불렸던 그는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외삼촌댁에 더부살이를 하는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특유의 유타와 유머 감각을 발휘해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그는 이 책으로 1983년 플리처상 평전·자서전 부문 상을 받았다. <연암서가·1만5000원>



▲명화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힘=세계사의 흐름을 다섯 가지 코드로 분석한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으로 알려진 일본 메이지대 교수 사이토 다카시가 좋은 그림을 관찰하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표현력, 스타일, 자기세계, 아이디어, 몰입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그림과 위대한 걸작을 가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뜨인돌·1만6000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밤=에미한 감성으로 시대의 이면을 읽어온 이재문 시인의 산문집. ‘모든 꽃과 그들은 쫓다’ 등 3부로 나눠 50여 편의 글을 담았다. 시인은 하루하루 삶에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과 현실을 바라보며 느낀 밤에 대한 단상을 전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안을 전한다. <고(故) 박영근 시인에 대한 우정어린 추억담을 비롯해 기형도 시인에 대한 추모의 글도 실렸다. > <화남·1만2000원>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소설가 서준환씨의 신작 소설집. 표제작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를 비롯해 중·단편 5편을 묶었다. 한국에서 ‘나’를 만난 적이 있다는 프랑스 약사의 거짓말 속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담은 ‘여명을 여는 풍적수’, 실어증을 소재로 한 ‘메아리’, 동화 ‘빨간두건’에서 영감을 얻은 ‘해몽’, 인디언 설화 형식을 빌려온 환상소설 ‘이보가 나무’ 등을 실었다. <문학고지성사·1만원>

▲항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장·기억, 시간, 그리고 나이=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를 파헤친 다우어 드라이스마 교수가 시간과 기억력의 관계를 조명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억력은 급격히 퇴화한다는 통념을 깨뜨린다. 물론 노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들이 기억하는 사건들의 시점이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코리브르·1만1000원>

1961-2011 창립 50년 “광주CBS 역사50년, 미래50년 비전선포 기념”

월드 DIVA! 로즈장

뮤지컬 / 팝 오페라 콘서트
뮤지컬 캐츠 Memory 전세계 1위
2010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2010. 10. 31(일) 오후 3시 /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062)951-3361
예매처 티켓링크 / 인터파크 / 옥션티켓
주최 광주CBS

전 세계인이 감동한 천상의 목소리
브로드웨이가 광주에 오다!